

일본 경제 동향

(Japan Weekly Economic Digest)

2013. 01. 28

- ① 일본경제지표
- ② 주간 경제이슈
: 아베 정부의 디플레 탈출전략
- ③ 경제정책동향
- ④ 일본기업동향
- ⑤ 한국관련워치

① 일본경제지표

□ 주요 경제지표

- 2012년 2/4분기 이후 수출부진 등으로 GDP성장율이 마이너스로 반전, 3/4분기에는 ▲3.5%로 확대
- 2012년 수출은 2.7% 감소한 반면, 수입은 3.8%나 증가함에 따라, 사상 최대 적자
* 對한국 무역수지 흑자는 21천억엔에서 16.7천억엔으로 축소
- 엔화의 對미달러환율이 2012년 10월 엔저로 반전, 11월 80엔대 진입, 2013년 1월 18일에는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 발표로 90엔대 전반까지 하락
- 2012년 7월 이후 경상수지흑자 축소경향, 11월에는 2.2천억엔의 적자로 반전

구분	2010	2011	2012	2012						2013 1	
				7	8	9	10	11	12		
실질GDP증가율(연율,%)	3.4	0.3	-	▲3.5			-			-	
수출(천억엔)	678	653	(637)	53	50	54	51	50	53	-	
수입(천억엔)	625	697	(707)	58	58	59	57	59	59	-	
對한국 수출	54.6	52.1	(49.1)	3.96	3.85	3.98	3.94	3.93	4.35	-	
對한국 수입	26.7	32.9	(32.4)	2.78	2.44	2.42	2.70	2.82	2.84	-	
직접투자(억달러)	572	1157	-	287			-			-	
對한국 투자	11	24	-	4.9			-			-	
소비자물가(%)	▲0.8	0.0	-	▲0.2	0.2	0.2	0.0	▲0.3	-	-	
실업율(%)	4.9	4.5	-	4.3	4.2	4.2	4.2	4.1	-	-	
경상수지(천억엔)	166.6	76.2	-	6.3	4.5	5	3.8	▲2.2	-	-	
엔화 환율	對미달러	85.7	79.1	-	79	78.7	78.2	79	80.9	83.6	-
	對원화	1321	1391	-	1446	1438	1439	1401	1344	1288	-
외환준비고(기말, 천억달러)	11.2	12.9	-	12.7	12.7	12.8	12.7	12.7	12.7	-	
은행대출금리(%)	1.57	1.48	-	1.40	1.40	1.38	1.38	-	-	-	

주1) '10,' 11년 지표는 회계연도(전년4~익년 3월), '12년 지표는 역년(1-12월)기준

2) 소비자물가, 실업율, 환율, 대출 금리는 기간평균

자료 : 일본경제신문, 재무성, 한국은행

□ 주요 연구보고서

- 『일본경제전망 : 아베노믹스에 대한 이해, 그 영향을 고려한 경제전망 수정』 다이와종합연구소, 1월19일
*출처:http://www.dir.co.jp/research/report/japan/outlook/monthly/20130118_006694.html
- 『해외생산거점의 선택방법』 일본종합연구소, 1월23일
*출처:<http://www.jri.co.jp/page.jsp?id=22573>
- 『국제경쟁력 순위로 본 일본과 주요국의 강점과 약점』 일본국회도서관, 1월23일
*출처: http://dl.ndl.go.jp/view/download/digidepo_6019129_po_074406.pdf?contentNo=1
- 『석유천연가스의 수입증가에 따른 아시아NOCs의 M&A 증가』 JOGMEC, 1월23일
*출처: http://oilgas-info.jogmec.go.jp/report_pdf.pl?pdf=1301_out_e_asiannoc_overseas_asean%2epdf&id=4822
- 『2013년 국제비즈니스를 보는 4개의 관점』 JETRO, 1월25일
*출처:http://www.jetro.go.jp/jfile/report/07001186/world_international_business.pdf

② 주간 경제이슈 : 아베 정부의 디플레 탈출전략

□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의 공동 대응이 중요

- 일본경제신문(2013.1.13)에 의하면, 정부와 중앙은행이 디플레탈출이라는 목표에 공동으로 대처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, 아베 정부의 금융정책은 대내외적으로 주목의 대상
 - 2%의 물가상승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기한으로 국채를 매입하기로 한 점은 가히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, 2%의 높은 물가목표는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이 공동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평가임
 - 금융완화만으로는 기껏해야 1%정도의 효과에 그쳐, 성장전략이 수반되어 1%정도 끌어 올려주어야 비로서 2%가 가능하다는 것
- 아베 정부의 경제정책은 금융완화, 재정정책, 성장전략 등 이른바 3개의 화살로 구성. 금융완화와 재정지출에 의해 경기를 떠받쳐주고 있는 동안, 구조개혁과 규제완화 등 성장정책이 어느정도나 추진되느냐에 의해 정책효과가 달라진다는 것
- 따라서 일본정부와 일본은행간 정책연대는 디플레탈출의 제 1단계이며, 다음 단계는 TPP나 규제개혁 등의 성장전략임. 실물경제를 회복시켜, 임금과 고용을 개선하는 정책 없이는 시장의 호전은 오래가지 못함

□ 적극적인 금융완화가 내포하고 있는 것

- 첫째는 엔저로의 유도임. 골드만삭스 증권 관계자에 의하면 달러당 91엔수준으로 3년간 유지되면 기업수익의 증가 등으로 물가는 1% 상승한다는 것
 - 중앙은행이 자금공급량을 늘리면 통화가치가 떨어지는 계기가 됨. 일본은행의 2013년 자산매입규모가 GDP의 7%. 미국 FRB의 최대 6.5%를 상회하나, 엔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일층의 자금공급이 요구됨.
- 둘째, 주가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촉진하는 수단임. 100조엔 이상 일본은행의 구입자산중 부동산투자신탁(REIT) 등 리스크자산 한도는 7.6조에 그침. 매입규모를 늘리면 그만큼 경기자극효과가 있음.

- 셋째, 자금경색을 해소, 수요를 환기시키는 효과임. 자금을 풀어 장기간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대출을 늘리는 정책도 필요
- 넷째, 부작용도 주시할 필요가 있는 점임. 국채의 매입액 증가가 국가의 채무를 메꾸는 것이라고 인식되는 경우, 재정에 대한 시장의 신인도를 떨어트려 금리 상승을 초래. 또 엔저가 지나치게 되면, 수입가격이 상승 경기를 역으로 냉각시킬 수 있음.

□ 엔 매도의 장기화 요인

- 작년 12월 19일 총선 이후 아베 정권의 금융완화 발표로 10%나 하락한 엔화 환율, 그리고 20%나 상승한 주가 상승세가 최근 둔화되고는 있음. 그러나 일본의 무역적자구조 정착, 미국의 경기회복, 유럽재정위기의 진정 등 금융정책 외에도 엔 매도 요인이 많음

□ 아베노믹스의 딜레마

- 최근 미국의 한 투자회사 대표에 의하면, 2%의 물가상승을 목표로 하면 장기 금리가 상승. 일본정부는 국채의 이자 상환에 몰려 국채가격이 급락할 것으로 예상
- 또 일본은행이 적극적인 완화를 계속하면 주가나 지가가 상승하여, 투자자들이 국채에서 주식이나 토지로 자금을 이동시켜 국채가격이 하락할 수 있음
- 일본의 한 민간연구소도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2%의 인플레이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평가

③ 경제정책동향

□ 경제산업성, 전력수급조정 전문기관 설치

- 경제산업성은 전력의 수급을 광역단위로 일치시키는 전문기관을 내년도에 설치할 방침임
 - 전력이 부족한 지역이 있으면 신설 기관이 전력회사에 해당 지역에 대한 전력공급을 요구
- 신설 기관에는 강력한 권한을 갖도록 하고 전력자유화가 이루어진 후에도 정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구축
 - 전력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사용하여 전력 회사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도 노림
- 신설 기관은 전력회사가 보유한 송전선이나 전력 각사의 공급지역을 잇는 송전선, 주파수변환설비 등을 운용·관리
 - 다수의 지역에 걸쳐 전력수급을 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, 전력회사에는 발전 여력이나 수요의 정보 등을 신설기관에 제출토록 의무화
 - 현재는 재해나 발전소 사정으로 전력이 부족하게 되면, 전력 각사가 협조하여 여타 지역으로부터 전력을 가져 오게 되어 있음
 - 그러나 자유화로 경쟁이 치열해지면 지금과 같은 협조가 어렵게 되어 전력의 유통이 잘 안될 우려도 있으므로 신설 기관은 공급지시에 위반하는 사업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함. 즉 강력한 권한으로 자유화의 마이너스 측면을 보완
- 아베 정권 하에서도 월전 재가동의 향방이 불투명하여 전력부족문제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, 신설 기관이 주도하여 광역조정을 실시,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바꾼다는데 취지가 있음
 - 현재는 일본 전국을 10개 지역으로 나누어 전력 각사가 좁은 지역에서 수급조정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, 전력이 남는 지역도 있어 낭비가 발생하기 쉬움

4 일본기업동향

□ 도시바와 GE, 화력발전분야에서 합작제휴

- 도시바와 미국 GE가 화력발전소 설비의 개발·판매분야에서 제휴, 금년중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키로 함
 - GE의 가스터빈을 조합한 연료효율이 높은 설비(GTCC)를 공동개발, 세계시장에서 판매
 - 가격이 저렴한 셰일가스를 사용한 화력발전소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이나 경제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아시아 등 신흥국의 발전수요를 미·일 연합으로 확보하려는 것
- 일본의 중전기 업계에서는 작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제작소가 화력발전분야를 중심으로 발전설비사업의 통합을 결정한 바 있음
 - 세계 전체로 신설 발전소에 대한 투자액은 2035년까지 무려 850조엔으로 예측됨에 따라, 상호 강점을 보완하여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재편이 가속
- 도시바와 GE는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. 절반씩 출자할 것으로 예상
 - GE는 가스화력발전설비의 핵심기기인 가스터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약 35%로 독일의 지멘스와 수위를 다투고 있음
 - 도시바는 발전기 등 주요설비를 제조하고 있는 외에 발전소 건설 실적이 있음
 - 판매 분야에서도 양사는 비교우위가 있는 지역을 보완함으로써 수주확대를 노리고 있음
 - 도시바는 대지진의 영향으로 화력발전소 신증설을 서두르고 있는 일본의 전력회사와 대외적으로는 태국 등 동남아 등에도 유력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, GE는 미국 및 유럽 외에 인도 등 신흥국에 강력한 영업망을 확보하고 있음

5 한국관련워치

□ 한국산 애니메이션 「로보카폴리」 일본시장 본격 진출

- 일본의 완구제조업체 드림컴트루(DCT)가 한국산 유아용 인기애니메이션인 「로보카폴리」의 라이선스사업을 일본 국내에서 전개키로 함.
 - DCT는 캐릭터완구 등의 판매나 문구업체 등에 대한 라이선스 공여로 2013년 회계연도에 약 30억엔의 매출을 목표, 유아용 애니메이션 로보카폴리의 캐릭터 완구나 잡화를 발매할 예정
- 동사는 최근 한국산 애니메이션의 제작사 「로이비주얼」로부터 일본 국내에서의 라이선스를 취득했음
 - 3월에 수입완구를 발매, 2014년 3월말까지 미니카나 잡화 등의 자사개발상품도 포함하여 100개 품목으로 늘릴 방침. 4월부터 TV동경계열에서 방영예정
- 로보카폴리는 로봇의 모습을 바꾸는 경찰차나 소방차의 캐릭터가 유아들에게 인기, EBS와 로이비주얼이 제작한 순수 국내창작 TV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2011년 2월 EBS에서 방영을 시작해 선풍적인 인기를 얻음

□ 원화 상승기조 계속

- 일본경제신문은 한국의 원화 환율이 1,040엔으로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최후 방어선인 1,050엔(노무라증권의 관계자)이하로 진입했다고 보도
 - 한국의 경기가 감속경향인데도 경상수지흑자는 과거 최고수준을 기록, 구조적으로 해외로부터 자금이 유입되기 쉬운데다, 미국·유럽의 금융완화도 원화에 대한 수요를 부추기고 있음
 - 한은 총재는 14일, 대폭적인 엔저 등으로 환율시장이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경우, 개입 등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발언
 -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작년 11월, 한국정부의 개입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개입한 경우는 데이터를 공표토록 요구한 바 있음. 개입을 견제한 미국의 지적은 2번째임
- 미즈호코퍼레이션 은행 관계자에 의하면, 미세조정(Smoothing Operation)방식의 개입으로는 원고행진에 제동을 거는데 한계가 있어 원의 상승기조는 신정권 출범 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관측